"어려운 이웃 돕고 나누는 일은 큰 기쁨입니다"

●김준동 광주 강남물산 대표

건어물 도매…매년 2차례 사회복지시설·단체에 기부

누적금액 5천여만원…"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어"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나누는 일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나눔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김준동(64·사진) 강남물산 대표는 12년째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 서구 풍암동 건어물종합시장에 강남물산을 개업하고 국내산 멸치, 김, 명태, 미역 등을 판매하고 있다.

김 대표는 10일 "어린 시절은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지만, 마음 속으로 '생활이 나아지면 그만큼 더 베풀자'라고 다짐하곤 했었다"며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자 이제는 효도도, 기부 활동도 하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이후 기부 등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나누는 일에 손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힘들게 사셨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노인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물품과 금액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개인과 행정기관 및 재능기부센터 등을 통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취약계층에 200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 누적 금액이 약 5천만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누구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행사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멋쩍어했다.

김 대표는 올해 4월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남해에서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힘들게 사는 초등학생 예은이의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남해군청에 연락해 지역 차상위계층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예은이에게는 별도로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후원했다.

김 대표는 "마음이 가는 곳에 기부하다 보니 망설임 없이 결정하게 된다"며 "가족들도 항상 응원해줘서 지금까지 기부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해남 북일면에서 태어난 김 대표는 초등학교 졸업 후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지만, 막냇동생을 돌보기 위해 1984년 광주로 내려왔고 가구 일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2005년 가족의 도움으로 건어물 장사를 시작했으나, 처음 5년은 매출이 시원치 않아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김 대표는 "돈을 벌어야 월세를 내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얼마간은 월세조차 내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회상했다.

올해 김 대표는 그간 사는 것에 쫓겨 하지 못했던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강남물산도 조금 확장할 계획이다. 물론 기부 활동도 지속한다.

그는 "매일 좋은 품질의 건어물을 얻기 위해 전국을 다니다 보니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앞으로는 명절이나 여유가 생길 때 가족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웃었다.

이어 "일이 바빠 아직 시작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글씨 연습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주성학 기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파란꿈지역아동센터 후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광주 남구 파란꿈지역아동센터에 희망풍차 물품(영양밥 세트)을 전달하며 훈훈한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광주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후원하고 있다.

윤영숙 파란꿈지역아동센터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도 나눔을 실천하며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후원을 펼쳐줘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 태영명가한의원-부릉 광산지사 진료협약

광주 태영명가한의원(병원장 전의상)은 "최근 배달대행업체인 부릉 광산지사와 진료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산정·첨단·연제·수완지점 각 지사장이 참여했으며, 상호 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진료협약에 따라 태영명가한의원은 부릉 광산지사 직원 등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제반 업무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전의상 태영명가한의원 대표원장은 "우리 한의원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을 모토로 하고 있다"며 "향후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과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목포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피해 가정·시설 위문

목포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정신·경제·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유가족을 위문하고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원 장기입원자, 복지시설 2개소, 피해자 60명 가구에 총 800만원을 지원했다.

행사에는 곽영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을 비롯한 지청 간부들과 범죄피해센터 종사자들이 함께해 피해자들을 위로·격려하고 피해자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고광일 이사장과 곽영환 목포지청장은 장기입원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과 용당로 소재 동민영아원을 방문해 원생들의 생활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목포한국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고광일 이사장은 올해 5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윷놀이 전통문화축제' 개최

(재)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김용덕)은 10일 오후 1시 남구 다목적체육관 1층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연계해 '빛타운 윷놀이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늘봄학교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산초등학교 학생들과 빛고을타운 회원 200여명이 함께 윷놀이(32강전)와 팽이 만들기 등 전통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3세대 통합과 화합의 장 등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선 광주교육감,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에 합격증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0일 교육감실에서 '2024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최고령으로 합격한 3명에 대해 합격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합격생 가족과 시교육청 간부들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 노학도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초졸 최고령 합격자인 김모(78)씨는 4번의 도전 끝에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며, 고졸 최고령 합격자 박모(74)씨는 올해 제1회 시험에서 중졸 학력을 인정받은데 이어 제2회 시험에서 고졸 합격증을 거머쥐는 쾌거를 거뒀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배움의 열정으로 일궈낸 '아름다운 졸업장'을 손에 쥔 여러분의 더 큰 미래를 응원한다"며 "다음 응시생들에게 희망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2회 검정고시에는 1천227명이 응시하고 1천명이 합격해 81.5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김다이 기자

담양 중앙파출소, 현금다액취급업소 방범 점검

담양 중앙파출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금융기관, 현금다액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범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은 금융기관, 현금다액취급업소인 금은방·편의점·주유소를 방문해 범죄예방 교육과 CCTV 설치·운영 상황, 경비 인력 배치 현황, 비상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현금다액취급업소의 경우 고객이 몰리는 명절의 특성을 고려해 외부 침입 시도 및 강도 사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보안 조치와 함께 자체적인 내부 보안 점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임성택 중앙파출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금융기관과 현금다액취급업소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민들은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김이강 서구청장, 지방정부協 상임회장 선출

광주 서구는 10일 "김이강(사진) 청장이 제5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김 청장은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의 실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15년 출범했으며 전국 33개(광역 3개·기초 30개) 자치단체가 회원 도시로 참여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2년간 주민들과 함께 실현해 온 내곁에 따뜻한 생활정부, 착한도시 서구의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성학 기자

박문옥 전남도의원, 목포 공생재활원 위문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의회운영위원장·목포3)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일 목포 공생재활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를 격려했다.

목포 공생재활원은 1985년 설립된 장애인 거주시설로 생활인과 시설종사자 등 12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일과 마스크, 세제 등의 생필품을 전달한 뒤 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살피고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문옥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

광주경찰청, 화물차 교통안전 합동단속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지난 9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1번로 입구에서 화물차 교통안전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날 합동단속은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화물차를 대상으로 적재용량 초과, 추락 방지 조치 등을 단속했다.

김태석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향후에도 불법 밤샘 주차단속 등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영암경찰,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영암경찰서는 "최근 시종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야간 운행 자제, 무단횡단 금지 등 어르신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부음

▲김영례씨 별세, 송병태(전 광주 광산구청장)씨 장모상·정회성(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씨 외조모상=발인 12일(목) 오전 9시30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실(062-951-1004).